

하루.K 작가이력

e-mail : dudghs21@hanmail.net / homepage: harukim.net / phone: +82 10 6680 9833

1980 광주 출생

200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2009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개인전

2024 Drinking in the painting, 이젤리, 부산

2023 산수라면, AN INC, 서울

2023 Imagine Nature on the Table, Felix Frachon Gallery, 브뤼셀, 벨기에

2023 Honey, I blew up the food, AStar gallery, 타이페이, 대만

2022 음식풍경, 루씨쏘아뜰리에, 제주

2022 식사풍경, 예술공간집, 광주

2022 미식도락,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제2전시실, 청주

2019 기묘한 식객 하루.K_와신짬뽕,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하정웅미술관, 광주

2018 산수_수집과 편집, 수호갤러리, 성남

2018 산수_수집과 편집, 갤러리S, 광주

2017 와유 그리고 운유_산수에 노닐다, 갤러리리채, 광주

2016 맛있는 산수, 키스갤러리, 서울

2016 맛있는 산수, 팔레드서울, 서울

2015 맛있는 산수, 신세계갤러리, 광주

2014 One day,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광주

2014 봄 여름 가을 겨울, 메이홀, 광주

2013 맛있는 산수, GMA갤러리, 서울

2010 Object, 금호유스퀘어갤러리, 광주

2009 Haru's Memory, M갤러리, 서울

2007 도시 속에 산다, 관훈갤러리, 서울

주요 단체전

2025 단원미술제선정작가전, 단원김홍도미술관, 안산

연결의 맛:ASAP, 더리미미술관, 인천

아침놀, 김넷과, 광주

남남, 예울마루, 여수

생태의집, 한옥, 사비나미술관, 서울

예술이랑숨바꼭질, 화성열린문화공간, 화성

2024 Asia Art on paper, Namusogallery, 헤이그, 네덜란드

여수국제미술제, 여수엑스포, 여수

TaTar2024, Galeri R.J.katamsi,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초등미술교과서밖으로, 삼각산금암미술관, 서울

아름 다름, 헬로우뮤지엄, 서울

3세대 물결전, 한벽원갤러리, 서울

2023 Korea-China International Ink Exchange Exhibition, 남경시문화관, 남경, 중국

- Here is, Where we meet, It's Ready space,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
Landscape Reemake, International Eco-Art Season and Literature Exhibition, 상해, 중국
수목비엔날레.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
신도원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이천
- 2022 4개의 풍경, HTC사옥, 타이베이, 대만
청주창작스튜디오결과보고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전시실, 청주
미학적 사유, 수호갤러리, 분당
오감, 롯데백화점 본관4~6F, 서울
호연지기, 광주롯데갤러리, 광주
차이의 합성, 인도한국문화원 백남준홀, 뉴델리, 인도
자라나는 실내-탈주의전략들,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갤러리, 동탄
Our step, Our hope, Artspace San Antonio, 샌안토니오시, 미국
담양아트워크 - 유유자적, 다미담예술구, 담양
마음보양, 성남큐브미술관, 성남
- 2021 낫선도시 도착한 사람들 어떤이야기,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산수와 풍경사이, 아산조방원미술관, 옥과
New Normal New Wave, 세종문화회관, 서울
상상적 기표-선으로부터, 무안군오승우미술관, 무안
Under_200, 센텀시티신세계갤러리, 부산
- 2020 언택트, 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뜨거운 오월, 밀알하나, 해동문화예술촌, 담양
탄수화물 휘게, 대전시립창작센터, 대전
각자의 시선,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광주
남남산수, 수원미술전시관, 수원
- 2019 정물화의 유혹, 오승우미술관, 무안
컨템포러리 아트 인 남도, 담빛예술창고, 담양
맛있는 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소소한 희로애락, 정읍시립미술관, 정읍
예술산책_길에서 만난 예술, 담빛예술창고, 담양
- 2018 만장프로젝트, 광주비엔날레, 광주
남도문화의 원류를 찾아서_보길도: 연꽃을 닮은 이상향, 신세계갤러리, 광주
무형, 디지털, 파인아트&페어, 뽕뽕브릿지, 광주
미식가들의 만찬, 담빛예술창고, 담양
붉은 땅, 푸른 강, 검은 갯벌_무안 문화의 원류, 오승우미술관, 무안
도서산간,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차경_빌려온 풍경, 이천시립미술관, 이천
어둠 속에서 빛을 깨우다, 롯데갤러리, 광주
- 2017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
작가미술장터 아트애틀 II_예술이 가득한 집, 신세계갤러리, 광주
음식사냥, 전북도립미술관, 전주
한국화를 넘어_리얼리티와 감각의 세계, 오승우미술관, 무안
- 2016 북경창작센터발표전 2014-2015 북경질주,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광주
한중일예술제, 닝보문화센터, 닝보

- 순천만국제자연환경미술제,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장, 순천
음식남녀, 신세계갤러리, 광주
아!무등이어, 무등현대미술관, 광주
- 2015 남도미술 200년_탄생과 열려진 지평,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_빛2015,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2014 네오산수, 대구시립미술관, 대구
가족사랑,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남도문화의 원류를 찾아서_순천: 삶 그리고 터, 신세계갤러리, 광주
A day at a time, 표갤러리, 북경
나를 발견하다, 남팅갤러리, 방콕
From Gwangju to Sofia, XYZ갤러리, 북경
VIVA ExCon 2014, Orange갤러리, 바코로드시티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센터 결과보고전, 포스갤러리, 북경
- 2013 더 이상 맛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갤러리, 광주
제15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선정작가전, 신세계갤러리, 광주
행복연가, 롯데갤러리, 광주
- 2012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발표전, 전라남도옥과미술관, 곡성
재미있는 상상 엉뚱한 친구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미술 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전, 봉산문화회관, 대구
- 2011 현대수묵 속의 풍류, 의재미술관, 광주
의재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프로그램 결과보고전_개화, 의재미술관, 광주
서울 컨템포러리_신세대 아트 스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10 문인의취, 관산월미술관, 남경
- 2009 작가공모 선정작가전, 아트스페이스미테, 광주
한중수묵화교류전_문인화, 의재미술관, 광주
- 2007 한국화 지평의 확산,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아트페어

- 2025 Art Jakarta,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KIAF, 서울, 한국
Study X Plas Asia art fair, 오사카, 일본
Volta Basel, 바젤, 스위스
World Art Dubai, Dubai World Trade Centre Za'abeel Halls, 두바이, UAE
Art central, 홍콩
Art on paper, 암스테르담, 네델란드
- 2024 Art Jakarta,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Art on paper, 브뤼셀, 벨기에
Art The Hague, 헤이그, 네델란드
Art Taichung, 타이중, 대만
World Art Dubai, Dubai World Trade Centre Za'abeel Halls, 두바이, UAE
Art Tainan, 타이난, 대만
Art Future Taipei, 타이페이, 대만

- 2023 Art Antwerp, Antwerp Expo, 브뤼셀, 벨기에
Art On Paper, 브뤼셀, 벨기에
- 2022 Singapore2022, Expo Convention Center Hall, 싱가포르, 싱가포르
Gallerie Art Fair, Setec, 서울

수상 / 레지던시 / 협업

- 2025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단원미술관
- 2025 중고등교과서 작품수록, 미래엔
- 2025 중고등교과서 작품수록, 미진사
- 2023 광주시미술상 허백련특별상 수상, 광주광역시, 광주시립미술관
- 2023 Ruangmes56 레지던시, 욱자카르타, 인도네시아
- 2022 아르코중견작가프로모션지원 선정
- 2021 청주시립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 2022 초등미술교과서 작품수록, 동아출판사
- 2019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 청년작가 1인 선정
- 2018 중고등미술교과서 표지작품선정, 미진사
- 2017 세프컬렉션 패밀리허브냉장고 아트콜라보, 삼성전자
- 2016 제5회 ETRO 미술대상 은상, 백운갤러리, 서울
- 2016 대인시장 아트비전, 광주
- 2015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빛”전 작가 선정
- 2015 아트버스, 광주광역시
- 2014 북경창작센터, 광주시립미술관, 북경
- 2013 제15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신세계갤러리, 광주
- 2012-2013 양산동창작스튜디오,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 2010-2011 의재창작스튜디오, 의재문화재단, 광주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은행,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성남문화재단, 무안군오승우미술관,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서구청, 광주광역시북구청, 전남수목비엔날레, 광주과학기술원, 삼성전자, 주식회사 ETRO, 신세계백화점, 영무건설, 시너테크, 나주비뇨의학과, 이랑건축디자인

오, 맛있는 산수의 시간이다!

김병수(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마치 요술같았어요! 처음에 붓으로 이렇게 돌리면 사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동양화 혹은 한국화라고 부르는 회화 스타일을 전공하게 된 계기를 하루. K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 매력과 미학을 동시에 명료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회화에 새로운 것이 올 때가 있다. 하루. K에 의해 자연의 장면들이 ‘맛있는 산수’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낱말들이야말로 그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맛있는 산수는 다양한 문화에 뛰어드는 풍경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풍경이란 무엇인가? 풍경을 정의하는 대신에 우선 하루. K의 화면을 들여다 보자. 그 장소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비존재인가, 혹은 유토피아인가? 어쩌면 그 풍경은 일종의 게임같기도 하다. 맛있는 산수라는 컨셉은 우리 시대의 트렌드인 융복합과 ‘먹방’ 등등의 콘텐츠가 결합된 문화적 형식의 회화이다. 하루. K, 그 세대의 자유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산수의 새로운 정치미학을 보여준다는 의미이다.

하루. K의 맛있는 산수는 전통 산수의 봉건성에 대한 민주적 회화 논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정치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론은 적을 것이다. 사회주의적 평등이라는 정당성의 근거가 사라졌을 때 논의를 통한 합의가 결여된 국가의 통합에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나 대외확장이라는 민족주의가 중요하게 된다. 여전히 중국은 ‘1인에 대한 복종’으로 간신히 통합되고 있다.”(아다치 게이치) 산수의 정치미학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지로 접어들었다. 인간으로서 ‘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묻는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예술의 미학을 찾고 거기서 작가의 지위를 획득한다는 것이 하루. K의 생각이다. 이것은 일종의 윤리학이기도 하다. 사람의 에르곤, 즉 기능이라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교조적이라기보다는 실용적이다. 덕, 정의, 선과 같은 윤리적 개념들이 초월적인 형상들의 목록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했던 것에서 벗어나 ‘쾌’의 차원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옳고 그름의 이해가 공간적, 시간적 사건들의 제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초월적인 존재인 선 자체의 인정에 달려 있다고 믿는 한, 윤리학을 형이상학의 소산 이외의 다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루. K의 산수미학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롭고 윤리적으로는 실용적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윤리학은 구름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일상 생활의 사실들 속에 닳을 내리게 되었다. “당면한 탐구는 우리들의 다른 탐구처럼 지식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것의 목표는 덕이 무엇인지를 알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덕스럽게 되는 것”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티카에 이르게 된다.

하루. K는 산수와 수묵의 결합이라는 현장성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서 현재의 작업을 연계한다. 얼핏 생각하면 별개의 세계인 화면들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리려는 목적에 맞춰 재료와 형식을 선택한다는 의미이다. 이른바 동양회화미학의 수행에서 재료에 대한 고정 관념을 탈피했다. 그런데 진관타오와 류칭핑이 함께 작업한 중국 근현대사를 새로 쓰는 《관념사란 무엇인가 1 : 이론과 방법》은 아직 미학과 예술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동아시아 미학 그리고 한국의 회화, 동양화 혹은 한국화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관타오는 초기 저작에서부터 1980년대 중국에서 유행한 시스템이론(《중국 문화의 시스템론적 해석》, 천지, 1994 참조)에 근거하여 중국의 전통 사회를 ‘초안정 구조’라고 분석했으며, 이러한 관점은 이 책에서도 일관 되고있다. 진한 제국 성립 이래 19세기 말까지 중국은 ‘봉건’의 늪에 빠져 있었으며, 이러한 역사의 정체를 빚어낸 것이 바로 소농경제•유교적 지식인의 관료정치•유교 이데올로기라는 경제•정치•사상의 세 하위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중국 사회의 초안정 구조’라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300년을 주기로 대동란이 발생하여 왕조가 교체되는 변화가 있었지만, 결국 초안정구조의 상태로 돌아가는 순환만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었다는 것이다.” 산수라는 이름으로 위에서 한 얘기는 그대로 한국에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의지는 다르다. 자본이 동일하게 투여되어도 토양에 따라 다른 것이다. 일종의 ‘지리적 불균등발전론’이라고 할 수 있다.

오스카 와일드의 유명한 농담 ‘모든 예술은 쓸모가 없다’는 종종 생각되는 것만큼 터무니없거나 명백히 거짓이 아닐 수도 있다. 많은 예술이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선전적, 또는 주제의 확대와 같은 실용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는 작품들은 새로운 대중에게 초기 도구적 가치가 물러나고 작품이 그 자체를 위해 가치가 있게 되는 맥락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 작품은 이 아이디어와 그 파급효과를 탐구한다. 미술사 초기 동굴 벽에 있는 영광스러운 구석기 시대 그림들은 뚜렷한 본보기를 보인다. 원래의 목적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항할 수 없이 그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묘사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는 예

술과 미적 감상이 의미하는 바의 한계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그러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용어들을 오용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미학의 범위와 욕망의 핵심으로 간다. 예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학은 필연적으로 문화에 얽매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고 보편적 가치에 대해 의미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단순히 역사적으로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인간적인 것인가? 문학이나 영화의 경우는 그 자체를 위해 가치가 있는 예술의 아이디어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한다. 문학과 영화 작품의 등장인물이나 시의 세밀하게 연마된 감정은 종종 우리 자신의 삶과 공명하고 위대한 작품에서 인간 존재에 대해 심오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즐거움을 준다. 이런 종류의 통찰력이 우리가 그러한 작품을 중시하는 이유 아닌가! 그러나 결론은 보이는 것만큼 명확하지 않으며 그 자체를 위해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생각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때 회화의 쾌락과 무용성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 사회적 객체로서 회화는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은 유희이다. 자유로운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루. K에게 이것이 확립된 시기는 대학원을 마치고 의재 미술관에서 레지던시를 하던 시기였다. 종이 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시도와 모색을 했다. 주체로서 작가 자신은 동양적이기도 하고 서양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작업의 정체성을 고민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동양은 실체가 불변하며 서양은 우연적인 것으로 파악해 회화에서 명암이 주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물에 대한 작가 특유의 파악은 그의 회화 방식과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관찰에 의한 것인데 거기에서 의미가 획득되는 것이다. 학습은 과정이고 이미 동서양 스타일의 2분법적이지만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해소되고 융합한다.

현실과 비현실이 섞인 초현실의 화면이 하루. K의 동시대적 감각이다. 살바도르 달리의 방법이 떠오르기도 한다. 사실 자연은 인공과 대립적으로 보이지만 ‘산수’는 그 둘이 해소되는 장소이다. 동양미학자 임태승은 다음처럼 말한다. “동아시아 미학의 중요한 범주인데 천연이라고도 한다. 원래는 선진시기 도가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었다. 우선 자연은 천지 혹은 자연계를 가리키는데 이때는 조화의 의미이다. 창작 과정중에 자연에 근본하고 천지를 본받는다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미술사학자 안휘준은 산수화로 역사적 풀이를 한다. “우리 나라를 포함한 동양에서의 산수화는 자연의 표현인 동시에 인간이 자연에 대해 지니고 있는 자연관의 반영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수화란 이 두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농경을 주로 하였던 우리 나라나 중국을 비롯한 동양인들에게 있어서 자연이란 매우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무생명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인체처럼 살아서 생동하는 존재로서 인식되었다. 이 때문에 자연을 표현한 산수화는 기운생동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일찍부터 전제되고 있었다. 자연과 인간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 때문에 중국과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산수화가 그려지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오고 있다. 산수화는 중국의 한대에 산악을 선인과 진수가 사는 영적 세계로 보는 신선사상의 유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도안적이며 상징적인 형태로 인물화등의 배경으로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남북조시대에 이르러 종병에 의해 와유사상이 제시되는 등 산수화의 이념이 형성되면서 점차 순수한 감상을 위한 그림으로 발전하였으며, 당대를 거쳐 10세기의 오대와 북송 초에 이르러 회화사의 주류로서 대중을 이루며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자연과 산수 그리고 팝 아트는 하루. K의 회화미학을 형성한다. 이것은 회화의 현실에서 현실로서 회화에 이르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대중이 동양화를 재미있게 느끼기를 원한다! 그것은 작가의 소명이자 임무이다.” 맛있는 산수는 일종의 ‘기행도’이다. 글로 쓴 여행기가 기행문이라면 일종의 여행과 식문화를 섞은 그림이 기행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2012~2013년 작업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작품 안에서 동양회화미학의 내용을 담고 싶어서 고전을 재해석한다. 이른바 그림 속 그림이다. 화면 속에 고전적인 회화가 있고 그와 연관된 현실적 상황과 사물들이 연결된다. 보이지 않는 산수와 볼 수 있는 산수를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보여준다는 의미이다.

하루. K의 화면은 많다. 산수의 미학은 날씨의 미학으로 연결된다. 하늘의 다양한 얼굴인 날씨는 사람들을 통합하고 갈라놓는다. 당연하게 여겨지고 예측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 속하지만, 기억에 남

는 경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정의에 따르면 날씨의 일시적인 상태를 말하며, 대기는 인간과 여러 다른 종에게 생명의 매개체이다. 과학적 용어로 날씨는 기후의 실체를 나타낸다. 기후는 장기간에 걸친 대기 조건의 패턴을 지정하는 반면, 날씨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현상학이 경험 이론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미학이 지각 이론에서 뿌리를 찾는다면, 날씨에 대한 현상학적 미학만이 엄밀히 말하면 가능한 반면, 기후 미학은 기후 데이터를 지각 가능하게 하거나 비정상적인 환경 현상과 기후 변화 이론간의 연관성을 유발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 인지적 매개가 필요하다. 가능한 방향중 일부를 스케치하거나 하늘의 여러 면에 대한 적절한 이름을 찾는 것이 날씨의 미학이 목표로 삼는 것이다. 산수는 자연이면서 그 변화무쌍한 날씨에 대한 느낌을 담아낸다. 그것은 화면의 배경이면서 분위기를 통한 인간 상태를 드러낸다. 하루. K가 만들어내는 화면이 자유의 정치미학이면서 동시에 일종의 에티카를 보여준다는 의미이다. 날씨와 풍경 그리고 자연과 산수는 나름의 함수 관계를 갖는다.

여기서 나는 하루. K의 회화 작품, 특히 그의 '맛있는 산수' 시리즈를 통해 동양화의 현대적 해석과 그 안에 담긴 정치적, 윤리적, 미학적 메시지를 탐구하였다. 하루. K는 전통적인 산수화의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과 융합시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하루. K의 회화는 산수라는 전통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 안에 현대적인 상징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 '맛있는 산수'는 단순한 자연 풍경의 묘사가 아니라, 풍경을 통해 시대적 흐름, 문화적 충돌, 그리고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가 말하는 '맛있는 산수'는 융복합적 요소가 결합된 형태로, 문화적 소비가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예술이 어떻게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그는 유머와 명료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미학적 실험을 통해 동양화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다. 하루. K의 작업은 자유와 윤리적 실용주의의 결합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포하는 미학을 지니고 있다. 이는 그가 자연의 미학을 다루면서도, 그 안에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방식이다. 예술이란 결국 사회적 참여를 통해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하루. K는 동양화의 전통적인 봉건적 속성에서 벗어나 민주적 회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의 회화에서 날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날씨는 그 자체로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이자, 인간 감정의 반영이며, 동시에 사회적 현상의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하루. K는 산수화라는 전통적 형식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와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 특히 날씨에 대한 인식은 그에게 중요한 미학적 테마로 작용하고, 이는 그의 작품에서 변화무쌍한 날씨가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루. K의 '맛있는 산수'는 기행도라는 형식으로, 여행과 식문화의 결합한 독창적인 표현 방식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자연의 묘사나 풍경화가 아니라, 글로 쓴 여행기처럼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결합시켜 새로운 예술적 언어를 창조하는 시도이다. 그는 이를 통해 고전 회화와 현대적 상황을 연결하며,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적 실험을 한다. 마지막으로, 하루. K의 작업은 단순히 미학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윤리적 실천을 예술 속에 담아낸다. 그의 회화는 자유의 정치미학과 실용적 윤리학을 결합시킨 결과물로, 전통적인 동양화의 경계를 넘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미학은 단순한 시각적 감동을 넘어, 자유와 윤리적 실천을 통한 사회적 참여의 의미를 탐구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Haru.K (B1980) (Kim hyoungjin)

Lives and works in Gwangju, KR

EDUCATION

2006 BFA in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KR

2009 MFA in Oriental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KR

RESIDENCIES

2023 Ruangmes56, Yogyakarta, IDN

2021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R

2014 Bijing Residency, Gwngju Museum of Art, Beijing, CN

2012–2013 Yangsan–dong Art Studio,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R

2010–2011 Uijae Art Studio, Uijae Cultural Foundation, Gwangju, KR

AWARDS

2025 Danwon Art Festival, Popular Works, Ansan Kim Hongdo Art Museum, Ansan, KR

2023 Gwangju City Heobaekryeon Art Prize Special Prize, Gwangju, KR

2019 Young Artist Invistional, Ha Jung–woong Museum of Art, Gwangju, KR

2016 Silver Prize, The 5th ETRO Art, Baekwoon Gallery, Seoul, KR

2013 Grand Prize, Shinsegae art award, Gwangju, KR

SOLO EXHIBITIONS

2024 Drinking in the painting, Easelly, Busan, KR

2023 Landscape Ramen, An Inc, Seoul, KR

Imagine Nature on the Table, Felix Frachon Gallery, Brussels, BE

Honey, I blew up the food, Astargallery, Taipei, TW

2022 Dining Scenery, Artspacehouse, Gwangju, KR

2019 Pungent–Tasting Jjamppong, GMA Ha Jung–woong Museum of Art, Gwangju, KR

2018 Landscapes_Collection and Editing, Soohoh Gallery, Seongnam, KR

Landscapes_Collection and Editing, Gallery S, Gwangju, KR

2017 Stroll around the Landscape, Gallery Riche, Gwangju, KR

2016 Delicious Landscape, KISS Gallery, Seoul Delicious Landscape, Palais de Seoul, Seoul, KR

2015 Delicious Landscape, Shinsegae Gallery, Gwangju, KR

2014 One day, Namdo Traditional Folk Food Museum, Gwangju, KR

Spring, Summer, Fall, Winter, May Hall, Gwangju, KR

2013 Delicious Landscape, GMA Gallery, Seoul, KR

2010 Object, Kumho Gallery, Gwangju, KR

2009 Haru's Memory, Gallery M, Seoul, KR

2007 Live in the City, Kwanhoon Gallery, Seoul, KR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25 Taste of Connection: ASAP, The Museum of Art, Incheon, KR

Morning Nol, Kim Natgwa, Gwangju, KR

Yum yum, Yeulmaru, Yeosu, KR

Ecological House, Hanok, Sabina Museum, Seoul, KR

Art and hide and seek, Hwaseong Open Culture Space, Hwaseong, KR

2024 Yeosu International Art Festival, Yeosu, KR

TaTar2024, Galeri R.J.katamsi, Yogyakarta, IDN

Different, Beautiful, Hello Museum, Seoul, KR

3rd Generation Wave Exhibition, Hanbyeokwon Gallery, Seoul, KR

2023 Korea–China International Ink Exchange Exhibition, Nanjing Cultural Center, Nanjing, CN

Landscape Remmake, International Eco-art season and literature Exhibition, Shanghai, CN

Here is, Where we meet, It's Ready Space, Yogyakarta, IDN

Jeonnam International Sumuk Biennale, Mokpo Culture & Art Center, Mokpo, KR

The new peach blossom land paintings, Woljeon Museum of Art Icheon, Icheon, KR

2022 4 landscape, HTC Office Building 1st Floor Lobby Gallery, Taipei, TW

Cheongju Art Studio Result Report Exhibition,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R

Aesthetic Reasons, Guardian Gallery, Bundang, KR

Five Senses, Lotte Department Store, Seoul, KR

Hoyeonjigi, Gwangju Lotte Gallery, Gwangju, KR

Synthesis of Difference, Nam June Paik, Korean Cultural Center, India, New Delhi, IN

Growing Strategies of Indoor-Defection, Ivy Lounge Gallery, Dongtan, KR

Our step, Our hope, Artspace San Antonio, San Antonio City, USA

Damyang Art Week – yuyujajeok, Damidam Art District, Damyang, KR

What stories of people who arrived in a strange city,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R

Between Sansu and Landscape, Asan Jobangwon Art Museum, okgwa, KR

New Normal New Wave, Sejong Museum of Art, Seoul, KR

From the Imaginary Signifier-Line, Muan-gun Oh Seung-woo Art Museum, Muan, KR

2021 Under_200, Centum City Shinsegae Gallery, Busan, KR

Untact,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R

Hot May, Wheat Grain, Haedong Culture & Art Village, Damyang, KR

Tansuhwamul hygge, Daejeon Creative Center, Daejeon, KR

Each Gaze, Holly Art Polygon, Gwangju, KR

Yum Yum Sansu, Suwon Museum of Art, Suwon, KR

2019 The Allurements of Still-Life, Muan Seungwoo Oh Museum of Art, Muan, KR

Contemporary Art in Namdo, Dambit Arts Warehouse, Damyang, KR

Visual Delights,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R

Small Joys and Sorrows, Jeongeup Museum of Art, Jeongeup, KR

Art on the Street, Dambit Arts Warehouse, Damyang, KR

2018 Manjang Project, Gwangju Biennale, Gwangju, KR

In Search of the Origin of Namdo Culture, Shinsegae Gallery, Gwangju, KR

Intangibility, Digital, Fine Art & Fair, Art space Ppong-Ppong, Gwangju, KR

Dinner for Gourmets, Dambit Arts Warehouse, Damyang, KR

Red Land, Blue River, Black Mudflat_The Origin of Muan Culture, Muan Museum of Art, KR

Book Mountains, Cheongju Museum of Art, Cheongju, KR

Borrowed Landscapes, Woljeon Museum of Art Icheon, Icheon, KR

Awaken the Light in the Dark, Lotte Gallery, Gwangju, KR

2017 Yeosu International Art Festival, EXPO Ocean Park, Yeosu, KR

Visual Artists Market – Art at Home II, Shinsegae Gallery, Gwangju, KR

Food Hunting, Jeonbuk Museum of Art, Jeonju, KR

Beyond Korean-style Painting, Muan Seungwoo Oh Museum of Art, Muan, KR

2016 Beijing Residency Report Exhibition 2017–2015, GMA Sangrok Exhibition Hall, Gwangju, KR

Korea-China-Japan Art Festival, Ningbo Cultural Center, Ningbo, KR

International Eco-Environment Art Festival, Suncheon Bay National Garden, Suncheon, KR

Eat, Drink Man Woman, Shinsegae Gallery, Gwangju, KR
 Ah! Mudeung, Mudeung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ngju, KR
 2015 200Years of the Namdo Art, The Birth and its Prospect, Busan Museum of Art, Busan, KR
 Light 2015, Young Artist Invitation Exhibition,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R
 2014 Neo-Sansu, Daegu Museum, Daegu, KR
 Family Love, Yangpyeong Art Museum, Yangpyeong, KR
 In Search of the Origin of Namdo Culture_Suncheon, Shinsegae Gallery, Gwangju, KR
 A Day at a Time, Pyo Gallery, Beijing, CN
 Found Me, Namthung Gallery, Bangkok, TH
 From Gwangju to Sofia, XYZ Gallery, Beijing, CN
 VIVA ExCon 2014, Gallery Orange, Bacolod, PH
 GMA Beijing Residency Report Exhibition, Force Gallery, Beijing, CN
 2013 You may not taste any more, Shinsegae Gallery, Gwangju, KR
 15th Gwangju Shinsegae Art Festival, Shinsegae Gallery, Gwangju, KR
 Happy Love Song, Lotte Gallery, Gwangju, KR
 2012 GMA Art Studio Resident Artist Report Exhibition, Jeollanam-do Okgwa Art Museum, KR
 Interesting Imagination, Whimsical Friends,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R
 Art Studio Network, Bongsan Cultural Center, Daegu, KR
 Elegance and Beauty in Contemporary Ink-wash Painting, Uijae Museum of Korean Art, KR
 Uijae Art Studio Report Exhibition, Uijae Museum of Korean Art, Gwangju, KR
 2011 Seoul Contemporary Art Star Exhibition, Seoul, KR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Seoul, KR
 2010 Literary Taste, Guan Shanyue Art Museum, Nanjing, CH
 2009 Artist Contest Selected Artists Exhibition, Art Space MITE, Gwangju, KR
 Korea-China Ink-wash Painting Exhibition, Uijae Museum of Korean Art, Gwangju, KR
 2007 The Extension of the Horizon of Korean Painting, Seoul Arts Center Hangaram Art Museum, KR

ARTFAIR

2025 Art Jakarta, Jakarta, IDN
 KIAF, Seoul, KR
 Study X Plas Asia art fair, Osaka, JP
 Volta Basel, Basel, CH
 World Art Dubai, Dubai World Trade Centre Za'abeel Halls, Dubai, UAE
 Art central, Hong Kong
 Art on paper, Amsterdam, NL
 2024 Art Jakarta, Jakarta, IDN
 World Art Dubai, Dubai World Trade Centre Za'abeel Halls, Dubai, UAE
 Art Tainan, Tainan, TW
 Art Future Taipei, Taipei, TW
 2023 Art Antwerp, Antwerp Expo, Brussels, BE
 Art On Paper, Brussels, BE
 2022 Singapore2022, Expo Convention Center Hall, Singapore, SIN

COLLABORATION

2025 Works are included in middle school art textbook, Mirae-n

2025 Works are included in middle and high school art textbook, Mijinsa

2018 Joint work for the cover of a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 Mijinsa

2017 Chef Collection Family Hub refrigerator art collaboration, Samsung Electronics Co., Ltd.

2015 Art Bus, Gwangju CityBus, South Korea, KR

PUBLIC COLLECTION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 Art bank, Gwangju Museum of Art, Jeonnam Museum of Art,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Gwangju City Hall, Gwangju Seogu District Office,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Samsung Electronics, Shinsegae Department Store, ETRO, Young Mu Engineering & Construction, Shinsung FA

Oh, It's Time for Delicious Landscapes!

Byoungsoo Kim (President of the Korean Art Critics Association)

"It was almost like magic! When you move the brush like this, shapes begin to appear." This is how Haru. K explains what drew him to study a style known as "Oriental Painting" or "Korean Painting" in Korea. His goal was to express its charm and aesthetics clearly, yet with a touch of humor. And there comes a time when something new arrives in painting. Through Haru. K, scenes of nature emerge as "Delicious Landscapes." The words themselves point directly to his work. In essence, "Delicious Landscapes" can be seen as an aesthetic that invites viewers into a cultural exploration. But what exactly is a landscape? Instead of defining it, let's first look into Haru. K's images. The landscapes he creates do not exist on earth. Are they, then, imaginary or utopian? Perhaps these landscapes resemble a kind of game.

The concept of "Delicious Landscapes" is a cultural form of painting that combines trends like fusion art and "mukbang" (food-themed content). In this way, Haru. K's work reflects his generation's sense of freedom, offering a new aesthetic that brings together nature and political expression.

Haru. K's "Delicious Landscapes" could be seen as a democratic logic of painting that counters the feudal nature of traditional landscape art. As Adachi Keiji notes, "Few theories suggest that China's political system has changed. When the basis for socialist equality disappears, nationalism—such as the 'Great Rejuvenation of the Chinese Nation' or foreign expansion—becomes crucial to unify a country that lacks consensus through dialogue. Even now, China remains tenuously unified under 'obedience to one person.'" The political aesthetics of landscape have departed from traditional methods and entered new territory, inviting viewers to question what it means to "live well" as a human being. For Haru. K, placing art's aesthetics within society and defining the artist's role within it are essential aims. This approach is also a kind of ethics.

Haru. K's approach to ergon—the core issue of a person's function—is grounded in practicality rather than dogma. Ethical concepts such as virtue, justice, and goodness shift from an abstract,

transcendent ideal to the realm of “pleasure.” As long as an understanding of right and wrong depends on acknowledging goodness as an entity beyond space and time, ethics cannot be seen as anything other than a product of metaphysics. Haru. K’s landscape aesthetics are politically free and ethically practical. In other words, his ethical perspective has “descended from the clouds” and anchored itself in everyday realities. Aristotle’s *Nicomachean Ethics* describes this perspective well: “The aim of our current inquiry, like all our inquiries, is not to know what virtue is, but to become virtuous.”

Haru. K does not overlook the immediacy of combining landscape and ink painting. This foundation is directly linked to his current work. On the surface, his images may seem to inhabit separate worlds, yet they are intricately interconnected. This reflects his careful choice of materials and forms to align with his artistic purpose, breaking away from traditional materials used in Oriental Painting. In exploring East Asian aesthetics and Korean painting, Haru. K draws attention to the insights of Jin Guantao and Liu Qingfeng, who re-evaluated Chinese modern history in their work, *What is Intellectual History 1: Theory and Method*. Though their study hasn’t fully extended to aesthetics and art, i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East Asian aesthetics, as well as Korean painting and Oriental Painting. In their early writings, Jin Guantao analyzed traditional Chinese society as a “hyper-stable structure,” a concept influenced by the systems theory popular in 1980s China (see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Chinese Culture*, Tianzhi, 1994). They argued that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Han Empire until the late 19th century, China remained entrenched in a “feudal quagmire,” a historical inertia driven by the combined forces of a smallholder economy, Confucian bureaucracy, and Confucian ideology—three subsystems comprising the “hyper-stable structure” of Chinese society. While great upheavals and dynasty changes occurred every 300 years, China inevitably returned to this hyper-stable state in a repeating cycle. This discussion, framed within the context of “landscape,” finds parallels in Korea, yet the aspiration for freedom differs. The same capital may be invested, but the outcome varies according to the soil—what could be called a kind of “geographic uneven development theory.”

Oscar Wilde’s famous quip that “all art is quite useless” may not be as absurd or patently false as it often seems. Few would deny that many works of art begin with practical aims—religious, moral, political, propagandistic, or simply thematic. However, works that endure over time often transition into contexts where they are valued for their own sake, their initial utility fading to make way for intrinsic worth. This idea and its impact are explored by art itself. The magnificent Paleolithic paintings on cave walls provide a clear example: despite complete ignorance of their original intent, we cannot help but regard them as important artworks. Here, we approach the limits of what art and aesthetic appreciation mean. Are we misusing these terms in such applications? This question goes to the core of aesthetics, questioning whether the pursuit of beauty and art must be culturally bound or if it can transcend cultural differences to convey universal values that are not merely historically relative but timelessly human.

In literature and film, the idea of valuing art for itself alone becomes even more compelling. Characters in literature or finely crafted poetic sentiments often resonate deeply with our own lives, bringing enjoyment by appearing to speak profoundly about human existence. Isn’t it this kind of insight that makes us value such works? However, conclusions are not as clear-cut as they

appear, and the notion of valuing something purely for itself never fully fades away. This reflection invites us to reconsider the pleasure and perceived uselessness of painting. As a social object, painting fulfills its role—it is a form of play, an expression of freedom. For Haru. K, this concept solidified after graduate school, during his residency at the Uijae Museum, where he experimented widely, including with paper. As a creator, he identifies with both Eastern and Western elements, which led him to reflect on his artistic identity. To him, Eastern art represents an unchanging essence, while Western art emphasizes contingency, with a focus on light and shade. His unique perception of objects shapes his painting techniques and style. Understanding an object comes through observation, where meaning is derived. Although his approach begins with a duality of Eastern and Western styles, this distinction naturally dissolves and merges during the process of creation.

Haru. K's contemporary sensibility is rooted in a surreal blend of reality and unreality, evoking methods reminiscent of Salvador Dalí. While nature traditionally appears to oppose artificiality, the landscape (*sansu*) becomes a space where these elements reconcile. East Asian aesthetic scholar Im Taeseung describes this as “a central category in East Asian aesthetics, often referred to as *chunyun* (nature). Originally, it was a core concept in Daoist thought from the pre-Qin period, symbolizing harmony between the cosmos and the natural world, guiding artists to root their creation in nature and emulate the universe.” Art historian Ahn Hwijoon further interprets this concept historically through landscape painting: “In East Asia, including Korea, landscape painting represents both nature itself and humanity's perception of nature. Thus, landscape painting carries these dual characteristics. In agrarian cultures like Korea and China, nature was cherished as a living, dynamic entity—seen not as lifeless but as an animate being, similar to the human body. This is why, from the start, East Asian landscape painting was expected to express this vitality. Due to this close relationship, landscape painting traditions emerged early in both China and Korea and have continued to the present. In the Han dynasty, landscape motifs began as symbolic backdrops, depicting mountains as spiritual realms inhabited by immortals and closely linked with Daoist beliefs. By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through figures like Zong Bing and his concept of *wa-yu* (spiritual wandering), landscape painting evolved into an art form valued for pure appreciation, ultimately dominating the art world by the Five Dynasties and early Northern Song period in the 10th century.”

Nature, landscape, and pop art are all fundamental to Haru. K's aesthetic, reflecting his pursuit of “reality within the reality of painting.” His mission is “for the public to find joy in Oriental painting!” This, he believes, is both his calling and duty. His “Delicious Landscapes” can be seen as a form of *gyeongdo* (travelogue painting), which, much like a written travel journal, combines elements of travel and food culture into a single artwork. This style originated from his projects in 2012–2013, and now he reinterprets classics to embed traditional Oriental Painting aesthetics into his work—a “painting within a painting.” Here, classical paintings appear within the canvas, integrated with modern objects and scenes, allowing visible and invisible landscapes to coexist on the same canvas.

Haru. K's canvases are clear, connecting the aesthetics of landscape with that of weather. Weather, with its ever-changing faces, can unite or separate people, a natural yet unpredictable

element embedded in our daily lives, often leaving lasting impressions. By definition, weather is the temporary state of the atmosphere, a life-sustaining medium for humans and countless other species. In scientific terms, weather reflects the tangible conditions of the climate. While climate represents long-term atmospheric patterns, weather is what we experience physically every day. Phenomenology, recognized as the theory of experience, and aesthetics, rooted in the theory of perception, suggest that a phenomenological aesthetic of weather is indeed possible. However, an aesthetic of climate requires various technical and cognitive mediations to make climate data perceivable, linking unusual environmental phenomena with climate change theories. The goal of weather aesthetics is to capture some aspects of these variations or even to name the many facets of the sky. In Haru. K's landscapes, the aesthetic of nature embraces the transient nature of weather, serving as both a background and a medium that reflects the human condition. His work thus embodies a political aesthetics of freedom, coupled with an ethical dimension. In this sense, weather, landscape, nature, and landscape painting all share a relational structure, each influencing the other.

In exploring Haru. K's paintings, especially his *Delicious Landscapes* series, we can see a modern interpretation of Oriental painting, infused with political, ethical, and aesthetic messages. Haru. K merges traditional elements of landscape painting with contemporary sensibilities, raising questions about the interaction between nature, humanity, and the social environment. His works engage the traditional subject of landscape (*sansu*) but are enriched with modern symbolism and significance. *Delicious Landscapes* are not merely depictions of natural scenes; they aim to convey the currents of the times, cultural conflicts, and political messages through landscape.

By combining various elements, *Delicious Landscapes* prompt us to consider how art creates new meaning in response to societal trends, especially in an era of cultural consumption. In this process, Haru. K maintains humor and clarity while reinterpreting traditional Oriental painting through aesthetic experimentation. His work combines freedom with ethical pragmatism, embodying an aesthetic that carries political messages. This approach reflects his commitment to exploring the aesthetics of nature while integrating social and ethical values.

Ultimately, Haru. K's art seeks to explore the meaning and value of human existence through social engagement. By moving away from the feudal aspects of traditional Oriental painting, he introduces a democratic logic into his art. In his works, weather plays a significant role, symbolizing the ever-changing nature of the environment, reflecting human emotions, and serving as an emblem of social phenomena. Haru. K uses the traditional landscape format to delve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ity, visually expressing the diverse changes and emotions within this dynamic.

His *Delicious Landscapes*, presented as travelogue paintings, combine travel and culinary culture in a unique form of expression. This approach is not merely a simple portrayal of nature or landscapes; it is an attempt to create a new artistic language, much like a written travel journal blending multiple cultural elements. Through this method, Haru. K connects classical painting with contemporary situations, experimenting across the boundaries of tradition and modernity.

In conclusion, Haru. K's work transcends mere aesthetic pleasure, embedding political and ethical action within his art. His paintings, which blend the political aesthetics of freedom with a practical ethical vision, go beyond the traditional boundaries of Oriental painting to reflect various issues in

contemporary society. The aesthetics he presents reach beyond simple visual impact, exploring the significance of social engagement through freedom and ethical action. His work becomes a critical examination of human participation in society, contributing not only to art but to the exploration of cultural values and shared human experience.